



아르헨티나 주요 와인 산지

아르헨티나의 와인 산지는 북부, 중앙의 쿠요, 남부의 파타고니아 등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North \mu \text{\psi}

Salta 살타

이 나라 와인 생산량에서 살타의 비중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와인 생산의 역사는 스페인 정복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서 깊은 와인 산지의 하나인 것이다. 또한 이곳은 과일 풍미가 뛰어난 토론테스로 주목을 받고있다. 토론테스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이다.

살타의 포도재배 지역은 해발고도 1,490m부터 시작해 3,000m를 넘는다.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이 위치한 포도밭들이다. 이곳은 여름 낮 최고 기온이 38°C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12°C까지 떨어진다. 일교차가 커서, 농밀한 아로마와 부드러운 탄난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기에도 이상적이다. 연강수량은 200mm 불괴해서 포도밭에서는 종종 키 큰 선인장들을 볼 수 있다. 레드는 말벡 외에도 까베르네 소비뇽과 따낫이 재배된다. 살타에서 가장주목할 지역은 카파아테(Cafayate)이다. 이 계곡에 70%의 포도밭이 집중되어 있으며, 3,200ha가 넘는 포도밭은 거의 파인 와인 생산에 이용된다.

● Catamarca 尹毕中屋計

북서부의 카타마르카는 칠레와 등을 맞대고 살타와 라 리오하 사이에 끼어 있다. 2000년대 초 반까지만 해도 식용 포도나 건포도만 생산되었던 곳이었지만 이웃 지역들처럼 점점 상업적인 와인 생산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카타마르카는 꽤 방대한 지역이지만 80%가 산악지대로 덮 여 있다. 또 날씨는 극히 건조하다. 연평균 강수량은 400~500mm, 카타마르카의 포도받은 아 바우칸(Abaucan) 강둑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피암발라 (Fambala) 지역부터 좀 더 생산량이 많은 남쪽의 티노가스타(Tinogasta)에 이른다. 주로 재배되 는 품종은 말벡, 시라, 보나르다 등이다.

● Tucumán 투크만

투크만은 살타의 남쪽 그리고 카타마르카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덩치가 작은 이 지역은 살타와 카타마르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의 포도밭들도 해발고도 1,800m에서 3,000m 정도로 고지대에 위치한다. 포도밭들이 주로 자리한 지역은 아마이차 델 발레(Amaicha del Valle), 꼴라라오 델 발레(Colalao del Valle), 퀄메스(Quilmes) 등이 속해 있는 타피 델 발레(Talí del Valle) 구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따낫, 말벡, 시라, 보나르다, 까베르네 소비뇽, 토론테스가 재배되며,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과 토론테스가 뛰어나다.

56 2020 February Wine Review 57



Cuyo 72

① La Rioja 라리오하

16세기 후반 스페인 정복자들이 라 리오하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를 근거로 라 리오하는 아 르헨티나에서 가장 먼저 포도나무가 식재된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지명도 스페인의 와인 산지 리오하에서 온 인물이 지은 것이다. 1633년 예수회의 신부들은 신에게 바칠 와인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 땅을 사들여 포도밭을 확장했고 이후, 1803년 이노센시오 고르디요(Inocencio Gordillo)가 그 포도밭을 매입하면서 와인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다. 현재 라 리오하에는 7,000㎡가 넘는 포도밭이 있다. 대게 이 지방의 서쪽, 시에라스 데 벨라스코(Sierras de Velasco)와 시에라 데 파마티나(Sierra de Famatina) 사이에 포도밭들은 자리를 잡았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품종은 이 지역 포도밭의 35%를 차지하는 토론테스 리오하노(Torrontés Riojano)로, 화이트 뿐만 아니라 로제 와인에도 이용된다. 라 리오하의 토론테스로 빚은 화이트 와인은 매우 아로마틱하고 파식한 질감을 보여준다. 레드 품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지만, 말벡, 보나르다. 시라. 까베르네 소비뇽 등이 재배된다.

San Juan 산호안

멘도사 바로 북쪽에 자리한 지역으로, 멘도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외인 산지다. 산 후안 역시 연 평균 330일이 해가 나는 무덥고 건조한 지역이다. 47,000㎡에 달하는 포도밭에는 시라, 말 벡,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따낫, 보나르다,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비오니에까지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된다. 그 중 보나르다는 아르헨티나에서 말벡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특히 산 후안에서 많이 발달했다. 한편 최신 기술로 정비한 산 후안에서 시라는 이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한 외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부 지역은 툴룸(Tulum), 울룸(Jllum), 쓴다(Zonda), 페데르날(Pedernal), 칼링가스타(Calingasta) 등 5개의 밸리로 나뉜다.

Nendoza 멘도사

이 나라 와인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와인 산지이자, 말벡의 심장부이다. 칠레와 국경을 이루는 안데스 산맥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 멘도사는 어디에서나 안데스 산의 존재 를 느낄 수 있다. 이 거대한 산에 기로막혀 태평양에서 오는 바람은 물기를 잃고 무덥고 건조해 진다. 연 강수량은 200mm. 기후는 반사막과 같다. 그렇지만 안데스의 만년설이 물 공급의 원천 이 되어 준다. 멘도사의 포도받은 해발 600~1,600m의 고지대에 주로 분포해 있다. 말벡의 세 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와인 생산량은 엄청나게 팽창했다. 고로 말벡의 생산량이 압도적이다.

그 외에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좋은 평을 받고 까베르네 프랑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며, 보나르다, 시라, 뗌쁘라니요와 피노 누아까지 생산한다. 화이트로는 샤르도네가 뛰어나다. 멘도사에서도 북부에 아르헨티나의 가장 이름난 와인들이 나는 지역이 몰려있다. 멘도사 시티 바로 남쪽의 마이푸 (Maipú)는 가장 역사적인 와인 산지이다. 반면 루한 데 쿠요 (Luján de Cuyo)에는 모던 와이너리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다시 아그렐로(Agrelo), 비스탈바(Vistalba), 라스 콤퓨에타스(Las Compuertas), 퍼드리엘(Perdrie) 등의 세부지역으로 나뉘어 그 안에서도 다른 캐릭터의 와인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최근 와인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우코 밸리(Uco Valley)는 멘도사에서 가장 높은 지대의 포도밭이 있는 곳으로 우아하면서도 탄닌의 구조감이 좋아 숙성력이 뛰어난 와인들이 난다.

● La Pampa 라팜파

파타고니아 북부의 라 팜파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맞닿아 있다. 약간 고도가 있는 평지로 가늘고 길게 움푹 파인 지형들이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팬 모양의 형태를 따는 계곡이다. 이 낮게 패인 지형들은 평균 약 100km 길이에 5~10km 넓이로 해발고도는 40m~100m 정도다. 이곳에 대략 215ha의 포도받들 이 자리 잡고 있다.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메를로, 말벡, 까베르 네 소비뇽 그리고 샤르도네이다.

Neuguén 네우켄

네우켄은 2000년대 초반에야 상업적인 와인 생산이 시작된 곳이다. 이곳은 산맥이 발달한 아르헨티나 북부의 산자들과는 대조적이다. 해발고도는 300m에 불과하고, 멘도사에 비해 서늘하며 안데스 산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다. 다만 강수량이 200mm 미만으로 매우 건조하다. 이 건조한 바람과 뜨거운 태양은 포도를 익히기에 충분하며, 20°C나 차이 나는 큰 일교차는 포도가 산도를 잃지 않으면서 복합미를 갖추며 익어가도록 도

Patagonia 非拉卜

와준다. 이 나라의 대표 품종 말벡을 제외하면 주요 재배 품종들도 북부와는 다르다. 서늘한 기후의 네우켄에서는 좀 더 우아한 피노 누아와 소비뇽 블랑이 많이 생산된다. 한편 네우켄에서 와인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네우켄의 주도에서 북서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산 파트리시오 델 차나(San Patricio del Chañar)이다.

● Río Negro 리오 네그로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산지는 리오 네그로다. 아르헨티나 남단의 와인 산지로 대륙 성 기후를 띠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서늘한 곳이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따뜻하고 건조한 편. 기 온의 편차는 아주 크고, 여름은 길게 이어져서 포도는 천천히 오래 익어간다. 연 강수량은 200mm가 채 되지 않는데,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리오 네그로 강이 물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균 고도는 240m로 북부의 다른 산지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리오 네그로는 크게 서쪽 네우겐 지역 가까이에 있는 하이 밸리(High Valley)와 미들 밸리(Middle Valley), 그리고 대서양 인근의 로우 밸리(Low Valley)로 나뉜다. 특히 하이 밸리의 와인들은 아르헨티나 국내에서뿐 아니라해외 시장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다. 리오 네그로는 화이트 품종도 아주 흥미롭다. 특히 세미용과 소비농 블랑은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미네랄 아로마를 보여준다. 레드 와인으로는데를로와 피노 누아 그리고 말벡이 유명하며 서늘한 기후 특성이 잘 반영된 와인이 만들어진다.





58 2020 February Wine Review 59



₩ KWC 2019 수상 와인

Bodega Norton 보데가 노통

1895년 에드문트 노통(Edmund Norton)이 후안 데 쿠요 지역에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1989년에는 크리스탈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의 오너 제르놋 랑게스 스와로브스키(Gernot Langes Swarovski)가 인수하게 된다. 보데가 노통은 건조한 기후를 따는 높은 고도의 포도밭에서 과일 풍미가 뛰어나고 복합미가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다. 특히 리제르바 와인은 50년 수령을 넘긴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만들어져 압도적인 농축미를 보여준다. 현재 6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며 세계적으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사 에노테카코리아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Norton Reserva Malbec Bronze Norton Privada Family Blend

● Trivento 트리벤토

글로벌 와인 그룹 콘차이 토로가 1996년 멘도사에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세 개의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트리벤토는 햇빛이 강하고 건조한 땅인 멘도사를 지나는 세종류의 바람(존다, 폴라, 수데스타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람들은 포도가 건강하게 생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트리벤토만의 개성을 지닌 와인을 빚는데 일조한다. 이뿐 아니라 오랜 양조 노하우, 현대적인 기술과 함께 빠른 성장을이룬 트리벤토는 세계 최고의 말벡을 생산하는 말벡 명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에 안주치 않고 말벡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입사 롯데주류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Trivento Golden Reserve Malbec

Finca El Origen 핀카 엘 오리엔

남미 최대 식품 그룹, 왓츠(Watt's)가 소유하고 있는 와인 전문 회사 캐롤리나 와인 브랜드(Carolina Wine Brand: 이하 CWB) 소속의 와이너리이다. CWB는 1996년, 칠 레 와인회사 최초로 아르헨티나에 와이너리를 설립하였다. '근원의 포도밭 (Vineyard of Origin)'을 뜻하는 핀카 엘 오리엔은 멘도사의 우코 밸리에 위치해 있다. 멘도사 지역에서도 무게감이 있고 풍부한 아로마를 지닌 와인을 만든다. 한편 암모 나이트 모양의 브랜드 로고는 12억 년 전 안데스 산맥이 바다 속에 잠겨 있었고 아 직도 곳곳에서 화석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Finca El Origen Gran Reserva Malbec **Silver** Finca El Origen Reserva Estate Malbec

El Esteco 엘 에스테코

아르헨티나의 유명 와인 그룹 페냐플로(Penalior)에 속해 있는 와이너리이다. 1892년 프랑스에서 이민 온 데이비드(David)와 살바도르 미셸(Salvador Michel)이 설립하였다. 엘 에스테코는 살타 지역의 깔차끼 밸리(Calchaqui Valley)에 자리하고 있다. 햇빛이 강하며 건조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색과 향, 풍미가 짙은 와인들이 탄생한다. 특히 이 와이너리의 포도받은 해발 1,8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풍족한 태양, 큰 일교차로 좋은 산도를 유지한 와인을 만들고 있다. 현재 이들은 엘 에스테코 와인을 닮은 우이한 호텔도 운영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El Esteco Altimus

Trapiche

트라피체

1883년 멘도사에 설립된 이후 높은 브랜드 인지도 와 명성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와이 너리이다. 1,000ha가 넘는 포도밭에서 아르헨티나 특유의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받은 최고의 포도를 얻어 와인을 만들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개척정신 과 혁신적인 마인드로 아르헨티나 와인 발전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아르헨티나 와인중 수출물량 1위, 내수시장 판매 3위를 차지했 고 한국시장에서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트라피체 는 와인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자연과 문회를 알리기 위해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날

수상 와인리스트

Gold Trapiche Manos Malbec
Silver Trapiche Broquel Malbec
Silver Trapiche Gran Medalla Malbec
Silver Trapiche Iscay Malbec - Cabernet Franc
Silver Trapiche Iscay Syrah - Viognier

Silver Trapiche Medalla Malbec

Finca Las Moras

핀카 라스 모라스

산후안지역에서 최고급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선구자로, 페냐플로 그룹에 속해 있는 와이너리이다. 1993년 리차드 스마트(Richard Smart)는 포도밭에 심어져 있던 블랙베리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스페인어로 블랙베리를 뜻하는 '모라스(Moras)'로 와이너리 명을 지었다. 이들은 산후안의 여러 계곡에서 1,100ha의 포도밭을 일구며,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핀카 라스 모라스는 세계적인 와인 품평회 MSC에서 '아르헨티나 최고의 와인생산자 트로피'를 여러 차례 수상하며 트라피체의 뒤를 잇는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날

수상 와인리스트

Gold Finca Las Moras Gran Syrah Gold Finca Las Moras Sagrado Pedernal Silver Finca Las Moras Barrel Select Malbec

Silver Finca Las Moras Mora Negra Silver Finca Las Moras PAZ Cabernet Sauvignon-

Cabernet Franc

Silver Finca Las Moras PAZ Svrah

Mascota Vineyards

마스코타 빈야드

마스코타 빈야드는 안데스 산맥 아래, 멘도사 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자연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안데스 강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더불어 큰 일교치는 건강하고 개성 있는 포도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토양은 점토와 충적토로 이루어 져 있다. 마스코타 빈야드는 100ra의 포도밭을 소 유하며, 말벡 외에도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 랑, 시라, 샤르도네를 재배하고 있다. 한편 마스코타 빈야드의 와인메이커, 로돌포 오피 새들러(Rodolfo Opi Sadler)는 30년 이상 와인 산업에 종사해 온 인 물로, 2014년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인메이커에 선 정되기도 했다. 수입사 이영FBC

수상 와인리스트

Gold Mascota Vinevards Unanime

Bronze Mascota Vineyards La Mascota Cabernet

Navarro Correas

나바로 꼬레아스

1798년 돈 후안 데 디오스 꼬레아스(Don Juan de Dios Correas)는 멘도사 지역에 포도밭을 조성하였다. 2세기가 지난 1974년, 가문의 직계손인 돈 에드문도 나바로 꼬레아스(Don Edmundo Navarro Correas)는 조상의 포도밭을 물려받아 자신의 이름을 건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된다. 그는 선조가설립한 자연 존중, 품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그대로이어받았다. 현재 나바로 꼬레아스는 고품질의 포도로 복합미가 뛰어난 와인을 만들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프리미엄 와인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수상 와인리스트

Best Argentina Red

Navarro Correas Alegoria Malbec

Silver Navarro Correas Reserva Cabernet Sauvignon

Bronze Navarro Correas Structura

Dona Paula

도냐 파울라

1990년 클라로 그룹(Caro Group)은 이르헨티나의 다양한 때루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 멘도사에 도냐 파울라를 설립하게 된다. 이들은 멘도사 내에서도 기후와 토양이 이상적인 지역에 마련한 703ha의 포도밭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만을 사용한다. 또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건조한 기후를 지닌 포도밭에 첨단 관개 시설을 도입하여 포도의 집중도를 높였다. 1999년 첫 빈티지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은 도냐 파울라는 신선함과 농밀한 풍미의 프리미엄 와인을생산하고 있다. 수임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na Paula Cigar Box Malbec Silver Dona Paula Los Cardos Malbec



60 2020 February Wine Review **61**